

# 조귀명 「추기동협유상」의 이질적 요소와 그 결합 원리 연구

## - ‘기(奇)’ 개념의 작동 방식을 중심으로 -

김 광 섭\*

1. 서론
2. ‘기(奇)’를 통한 『추기동협유상』의 이질적 요소 결합 분석
  - 2.1. 18세기 ‘상기(尙奇)’ 미학과 「추기동협유상」의 독자성
  - 2.2. ‘기(奇)’의 결합 원리 : 이질적 요소를 조직하는 방식
  - 2.3. ‘기(奇)’가 창출하는 미학적 효과
3.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는 18세기 문인 조귀명(趙龜命, 1693~1737)의 「추기동협유상(追記東峽遊賞)」에 나타난 텍스트의 구성 원리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작품은 유람의 기록(遊記), 인물과 역사(傳記), 철학적 사유(說)와 같은 이질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독창적인 텍스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奇)’라는 개념이 이러한 이질적 요소들을 하나의 텍스트로 통합하는 핵심적인 조직화 원리임을 밝혔다.

조귀명은 비범한 자연과 기이한 인물, 초자연적 사건 등을 통해 ‘기(奇)’를 구현하며, 이를 이질적 요소들의 병치, 증폭, 연쇄의 방식으로 활용하였다. ‘기’는 풍경과 기억, 행위와 사유를 매개하는 촉매제로 작용하여 텍스트 내에 다성적(多聲的) 구조와 비선형적 시공간을 구축하고 있었다. 아울러 ‘춧농’이

---

\*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강사(river0815@hanmail.net)

나 ‘양의 내장’과 같은 구체적 비유는 관습적 문체와 구별되는 작가만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표현 전략으로 기능하였다. 이처럼 「추기동협유상」에서 ‘기’는 단순한 수사를 넘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미학적 동력이다.

\* 주요어: 조귀명, 「추기동협유상」, 기(奇), 조직화 원리, 18세기 산문

## 1. 서론

조선 후기 문장가 조귀명(趙龜命, 1693~1737)의 「추기동협유상(追記東峽遊賞)」은 전통적인 한문 산수유기(山水遊記)의 범주를 넘어서는 독창적인 텍스트이다. 이 작품은 유람의 과정을 기록하는 유기(遊記) 형식 안에 인물의 행적을 다루는 전기(傳記)와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설(說)의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복합적인 텍스트 구조를 선보인다. 물론 한문학의 전통에서 산수유기에 작가의 사유나 관련 인물의 행적을 삽입하는 방식이 드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추기동협유상」은 단순한 삽입을 넘어, 텍스트 전반에 걸쳐 자연과 인물, 설화적 요소가 서로 교차하며 다층적인 공간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산수유기와는 차별화되는 독자성을 지닌다. 이러한 복합적 특성은 그 복잡성으로 인해 텍스트의 통합적 구조 원리에 대한 해명을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기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추기동협유상」의 난해한 문체, 자연 묘사, 작가의 내면 심리 등 개별적 요소에 주목하거나, 중국 명말청초 문학과와의 영향 관계 및 단편적인 장르 혼합 현상을 논하였다.<sup>1)</sup> 이러한 접근은 작품의 여러 중요한 측면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으나, 각기 다른 이질적 요소들이 어떻게 하나의 통일된 텍스트 안에서 유기적으로 융합되는지를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1) 강수진, 「동계(東谿) 조귀명(趙龜命)의 글쓰기 연구 -병에 대한 인식과 극복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34,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김민학, 「東谿 趙龜命 散文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박희수, 「東谿 趙龜命 遊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박희수, 「趙龜命 「追記東峽遊賞」의 문체와 작가의식의 의미에 관하여」, 『동방한문학』 87, 동방한문학회, 2021.

한계를 보였다. 특히 ‘기(奇)’라는 미학적 개념이 단순한 수사적 장치를 넘어, 이질적 요소들을 연결하고 텍스트의 의미망을 확장하는 핵심적인 결합 원리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고는 ‘기(奇)’ 개념이 「추기동협유상」의 다양한 이질적 요소들을 결합하는 핵심적인 조직화 원리로서 기능한다는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18세기 ‘상기(尙奇)’ 미학의 흐름 속에서 「추기동협유상」이 지닌 복합성을 규명하고, ‘기’가 각 요소의 경계를 넘나들며 텍스트를 결합하는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결합 방식이 어떠한 새로운 미학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기(奇)’를 통한 「추기동협유상」의 이질적 요소 결합 분석

### 2.1. 18세기 ‘상기(尙奇)’ 미학과 「추기동협유상」의 독자성

18세기 조선 후기 한문 산문은 이전 시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미학적 전환을 맞이한다. 이 시기 문단의 주요 경향 중 하나는 ‘상기(尙奇)’, 즉 ‘기(奇)’를 숭상하는 흐름이었다. ‘기’는 단순히 ‘기이하고 괴상함’이라는 표면적 의미를 넘어, 당대를 지배하던 의고적(擬古的) 문풍의 상투성과 형식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제기된 미학적 개념이었다. 문인들은 ‘기’를 통해 진부한 표현에서 벗어나 작가 자신의 진실하고 개성적인 목소리, 즉 ‘진(眞)’을 구현하고자 했다.<sup>2)</sup> 이러한 진실성의 추구 과정에서 ‘기(奇)’는 전통적으로 ‘정(正)’과 대립하던 종속적 위상에서 벗어나 오히려 ‘정(正)’을 새롭게 성취하는 상위의 원리가 되거나 그 자체로 독립적인 미학적 기준으로 의미의 확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18세기 ‘상기(尙奇)’ 미학을 보여주는 문인 중에서도 조귀명의 문학적 실험은 단연 독보적이다. 그가 당대의 다른 문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奇)’ 미학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가문과 개인적 성향, 그리고 실존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는 소론 명문가

2) 김경, 「18세기 漢文散文의 尙奇 논의와 作品樣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44~62쪽.

출신이었으나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문장가로 자처했다. 스스로를 “유자도 불자도 한유도 유종원도 아닌 우뚝하게 홀로 솟은 건천자”로 일컬으며 누구의 추종자도 되기를 거부했다. 이러한 강한 개성과 주체성은 『장자』와 불교, 그리고 이탁오와 원굉도 등 명말 문인들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지적 편력 위에서 형성되었다.<sup>3)</sup>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평생 극심한 병고에 시달렸다는 사실이다. 이 실존적 조건은 그를 세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깊은 내면 성찰로 이끌었으며,<sup>4)</sup>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초월적 세계와 신이한 현상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는 조귀명에게 단순한 문예 사조를 넘어 자신의 고유한 세계 인식과 실존적 고뇌를 담아낼 수 있는 필연적인 미학적 선택이 되었다.

이러한 조귀명의 ‘상기(尙奇)’ 미학이 가장 첨예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구현된 작품이 바로 「추기동협유상」이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산수유기의 범주에 쉽게 포섭되지 않는 독특한 복합적인 텍스트의 특성을 그 핵심으로 한다. 박희수가 지적했듯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정을 서술하는 전통적인 일기체 형식에서 벗어나, 유람한 장소를 중심으로 아홉 개의 독립된 이야기[소절(小節)]가 병렬적으로 이어지는 ‘소절화(小節化)’ 양식을 취한다.<sup>5)</sup> 이로 인해 텍스트는 선형적으로 흐르기보다는 인상적인 순간들이 단절적으로 이어지는 ‘불연속적 인접’ 구조를 띠게 되는데, 이는 작품의 구조적 복합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추기동협유상」의 이러한 복잡성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이질적 요소의 공존과 교차를 통해 구현된다. 첫째는 공간의 이동과 감각적 체험을 기록하는 ‘유기(遊記)’적 요소이다. 「수옥정」에서 얼음 폭포를 묘사한 부분이나<sup>6)</sup> 「풍수

3) 김민학, 앞의 글, 80~108쪽.

4) 강수진, 앞의 글, 133~137쪽.

5) 박희수, 「趙龜命 「追記東峽遊賞」의 문체와 작가의식의 의미에 관하여」, 『동방한문학』 87, 동방한문학회, 2021, 269쪽.

6) 趙龜命, 「追記東峽遊賞」, 『東谿集』 권2, 42쪽. 「漱玉亭」, “丙午冬, 伯氏自咸陽, 移赴清風, 奉板輿從. 十二月乙丑, 踰鳥嶺之險, 進入延豐漱玉. 是有絕壁屏圍, 水瀑垂焉. 飛沫皆冰, 粼粼如燭珠. 如玉假山, 瑰巧眩幻. 壁近底橫壑如人呀口開, 雪踏潭冰以入, 僂行以周. 冰氣栗人. 瀑左有

혈」에서 굴속 탐험의 과정을 묘사하며 느끼는 신체적 긴장감은 유람의 현장성을 생생하게 전달한다.<sup>7)</sup> 둘째는 인물의 행적과 역사를 다루는 ‘전기(傳記)’적 요소이다. 조귀명은 「수옥정」에서 조부와 숙부가 남긴 흔적을 통해 개인의 가족사를 서사에 끌어들이고,<sup>8)</sup> 「귀담」에서는 동행한 금객(琴客) 김성택의 격정적인 춤과 노래를 생생하게 포착하여<sup>9)</sup> 작품에 인물 서사의 역동성을 부여한다. 셋째는 초월적 사유와 상징적 의미를 담아내는 ‘설(說)’적 요소이다. 「단구」에서는 기녀의 전설을 삽입하여<sup>10)</sup> 유람 공간에 신화적 상상력을 덧씌우며, 「월악」에서는 급격히 변한 자연을 보며 백씨(伯氏)가 “상전벽해의 변화가 손가락 한 번 튕기는 것과 같구나”<sup>11)</sup>라고 탄식하는 대목을 통해 단순한 경관 묘사를 철학적 성찰의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따라서 「추기동협유상」에 나타나는 이러한 이질적 요소들의 결합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기(奇)’ 미학을 구현하기 위한 조귀명의 의도적인 미학적 전략으로 보아야 한다. 하나의 고정된 장르(正)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유람의 기록, 인물의 행적, 철학적 사유라는 여러 요소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결합하는 것(奇) 자체가 바로 ‘상기(尙奇)’ 정신의 실천인 것이다. 그는 유람길에서 마주한 세계의 기이하고 다층적인 모습을 단일한 유기의 형식만으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얼음 폭포의 신비로운 아름다움(遊記)은 그곳에 얽힌 가문의 역사(傳記)와 결합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깊어지며, 동굴의 기괴한 형태(遊記)는 그곳에서 들려오는 초현실적인 소리(說)와 만날 때 텍스트의 긴장감이 극대화된다.

先祖大書小開先漱玉亭石刻題名, 其旁亭, 則第七叔父樹也。前對之。”

7) 위의 책. 「風水穴」, “山之下, 是有風水二穴。風秋冬息, 春夏嘘。穴口帖地腹以入, 窸然若室者十餘武。小竇北出, 過是如羊腸, 如鍊汞流凝, 奇怪萬形。其土赤泥, 積陰森森, 上下常有聲, 如大川澎湃。人行, 或起或頓或蹲或伏或湧以躡, 或墜以下, 或左抱而先右足, 或右抱而先左足。人一炬, 炬隔人如漆。前者去久, 聲在背, 後者蹣跚, 顧不見已而…”

8) 위의 책. 「漱玉亭」, “瀑左有先祖大書小開先漱玉亭石刻題名, 其旁亭, 則第七叔父樹也。”

9) 위의 책. 「龜潭」, “琴客金聲澤狂叫起舞。”

10) 위의 글. “古有丹丘之妓, 死曰, 葬我於龜潭之岸, 以望靄臺我所遊也。”

11) 趙龜命, 앞의 책. 43~44쪽. 「月獄」, “甲子, 同伯氏, 閔生, 德老, 游遮日巖。巨石鋪底, 流川交絡。面前國師峰, 卓立尤奇。暴潦蕩噴, 奇石多爲沙礫所掩。伯氏曰, 與辛丑來時, 大異矣。桑海之變, 不容彈指如此。垂虹梯白石, 蜿蜒如偃虹。瀑布沿射, 下爲深潭, 瑩滑不可履。水門絕壁削立, 中嵌爲大門, 闕高數仞…”

이처럼 「추기동협유상」의 복합적 성격은 18세기 한문 산문을 이끌었던 ‘尙奇’ 미학이 조귀명이라는 탁월한 작가의 주체적 세계관과 실존적 조건을 통해 구조적 차원에서 발현된 가장 대표적 사례이다. 조귀명은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파격적인 실험을 통해, 세계와 인간에 대한 자신의 독창적이고 ‘기(奇)’한 인식을 담아낼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단순한 산수유기가 아닌 당대의 미학적 지향과 작가의 내면세계가 결합하여 정형화된 산수유기의 틀을 넘어선 텍스트로서 그 문학사적 위상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 2.2. 기(奇)의 결합 원리 : 이질적 요소를 조직하는 방식

「추기동협유상」에서 ‘기(奇)’는 단순히 기이한 풍경이나 사건을 묘사하는 수사적 장치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작품의 구조적 차원에서 이질적인 요소들을 하나로 묶고 서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핵심적인 결합 원리로 기능한다. 18세기 문단이 상투적인 모방에서 벗어나 작가 자신의 진실하고 개성적인 목소리, 즉, ‘진(眞)’을 구현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을 때, ‘기(奇)’는 그 ‘진(眞)’을 담아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미학 전략이었다. 조귀명은 바로 이 ‘기’의 조직력을 활용하여, 정형화된 규범을 무너뜨리고 유람의 체험(遊記的 요소), 인물과 역사(傳記的 요소), 철학적 사유(說的 요소)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글쓰기를 실험한다.

「추기동협유상」의 아홉 개 소절 전체는 이러한 이질적 요소들이 ‘기(奇)’를 매개로 복합적으로 융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아래 <표 1>은 각 소절에서 ‘기(奇)’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며, 이질적인 요소들을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는지를 재정리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도식적 분류에서 벗어나 ‘기(奇)’가 실제 텍스트 내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분석한 것이다.

〈표 1〉 「추기동협유상」의 ‘기(奇)’를 통한 이질적 요소의 결합 방식

작품	‘기(奇)’의 발현(핵심 계기)	결합되는 이질적 요소	‘기(奇)’의 작동 방식(결합 원리)
漱玉亭	얼음 폭포의 비현실적 묘사(예: 춧농 구슬, 옥가산)	① 감각적 체험(遊記) ② 가족의 역사(傳記)	<b>【병치(並置)와 의미 부여】</b> ‘기(奇)’한 자연 묘사(①)가 그 공간에 인문적 흔적(②)이 존재해야 할 미학적 당위성을 부여하며 두 요소를 병치시킴
風水穴	동굴의 기괴한 현상 (예: 양의 내장) 초현실적 청각 경험 (예: 큰 강물 소리)	① 신체적 탐험(遊記) ② 피란의 역사(傳記) ③ 이계(異界)적 감각 (遊記)	<b>【증폭(增幅)과 공간 변환】</b> ‘기(奇)’한 시각(①)과 청각(③)이 결합하여, 과거 피란처(②)라는 역사적 공간을 현실 논리가 통용되지 않는 이계(異界)적 공간으로 변환시킴
寒碧樓	달밤의 정취와 노인의 노래	① 자연 풍경(遊記) ② 인물의 예술 행위 (傳記)	<b>【조응(照應)】</b> ‘기(奇)’한 자연(①)과 인물의 예술(②)이 조응하며 감각과 정서가 교감하는 미학적 순간을 연출
桃花洞	도원(桃園)의 이미지 차용	① 일상적 공간(遊記) ② 고전적 설화(說)	<b>【중첩(重疊)】</b> 일상적 공간(①)에 신화적 상상(②)을 중첩하여 공간의 의미를 확장
龜潭	압도적 절벽과 김성택의 광규(狂叫)	① 웅장한 자연(遊記) ② 비범한 인물(傳記) ③ 불멸의 사유(說)	<b>【연쇄(連鎖)와 심화】</b> ‘기(奇)’한 자연(①)이 ‘기’한 행위(②)를 촉발하고, 이는 다시 ‘기’한 사유(③)로 연쇄되며 점층적으로 심화됨
丹丘	기녀의 전설	① 유람 공간(遊記) ② 과거 인물/전설 (傳記/說)	<b>【서사화(敘事化)】</b> 흠어진 공간(①)과 인물(②)의 요소를 전설을 통해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 엮어냄
月巖	상전벽해의 풍경	① 변화된 자연(遊記) ② 백씨의 철학적 감회(說)	<b>【매개(媒介)】</b> ‘기’한 자연의 변화(①)가 인간사를 초월하는 철학적 성찰(②)을 이끌어내는 매개체로 작용
義林池	선인(仙人)의 흔적과 상상	① 감각적 체험(遊記) ② 초월적 상상(說)	<b>【비약(飛躍)】</b> 감각적 체험(①)을 매개로 존재론적 성찰(②)로 비약
金屑泉	이름과 실제의 불일치	① 감각적 실체(물어끼) (遊記) ② 언어적 상징(금가루) (說)	<b>【충돌(衝突)과 질문】</b> ‘기’한 불일치(①,②)를 통해 인식의 경계와 환상에 대한 인식론적 질문을 던짐

‘기’는 이질적 요소들이 공존할 수 있는 허용 공간을 마련한다. 즉, 현실 세계의 인과율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이한 사건이나 비범한 인물의 등장은 그 자체로 텍스트의 시공간을 일상적 차원에서 벗어난 ‘기’의 공간으로 전환시킨다. 이렇게 구축된 ‘기’의 공간 안에서는 사실적 기록(유기)과 허구적 상상(설), 그리고 역사적 인물의 행적(전기)이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게 된다. 기이한 자연은 그곳에서 얽힌 전설을 불러내기에 충분한 배경이 되고, 비범한 인물의 돌출 행동은 기이한 풍경 속에서 오히려 필연적인 것으로 느껴진다. 「수옥정」, 「풍수혈」, 「귀담」 등 작품의 주요 소절들은 ‘기’가 어떻게 각기 다른 요소를 매개하고 결합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수옥정」에서 결합의 동력은 얼음 폭포의 ‘기’한 모습에서 일어난다. 작가는 얼음 폭포의 모습을 “춧농으로 만든 구슬 같고, 옥으로 만든 가짜 산처럼 아름답고 기이하며 화려하다”<sup>12)</sup>고 표현한다. 여기서 ‘옥가산’ 등의 비유는 그 자체로 ‘설(說)’적 사유가 아니라, 대상을 비일상적인 예술품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기(奇)’한 묘사(遊記)이다. 이렇게 ‘기’를 통해 미학적 대상으로 격상된 자연(遊記)은 곧바로 그 공간에 얽힌 작가의 가족사, 즉 조부와 숙부가 남긴 흔적(傳記)을 소환하는 연결 고리가 된다.

폭포 왼편에는 돌아가신 조부께서 ‘소개선수옥정’이라 크게 써서 돌에 새긴 제명이 있다. 그 옆의 정자는 곧 일곱째 숙부께서 세운 것이다. (내가) 그 앞에 마주했다.<sup>13)</sup>

여기서 ‘기(奇)’는 감각적인 자연 묘사(遊記)와 역사적 기록(傳記)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다리 역할을 한다. 기이하고 아름다운 자연은 인간의 흔적과 역사를 품기에 충분한 공간적 배경이 되며, 역으로 인간의 흔적은 그 자연에 인문적 깊이를 더해준다. 마지막 구절 ‘그 앞에 마주했다(前對之)’는 이 ‘기’한 자연과 조상의 역사가 병치된 공간에 작가가 마주 섰음을 선언하는 행위이다. 이는 ‘기’한 풍경과 가문의 역사가 작가 자신에게 현재적 의미로 통합

12) 위의 책, 42쪽. 「수옥정」, “巖巖如燭珠, 如玉假山, 瑰巧眩幻”

13) 위의 글. “瀑左有先祖大書小開先漱玉亭石刻題名, 其旁亭, 則第七叔父樹也. 前對之.”

되는 순간을 포착한 것으로 텍스트의 결합을 완결하는 마무리가 된다.

「풍수혈」에서 ‘기’의 조직력은 더욱 역동적으로 발휘된다. 이 소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의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의 내장처럼 꼬불꼬불하고 수은을 녹여 흘리는 듯한 동굴의 기괴한 형상(遊記)<sup>14)</sup>은 독자를 현실 세계의 논리가 통용되지 않는 미지의 공간으로 이끈다. 이 기이한 공간 속에서, 과거 이곳이 피란처였다는 역사적 사실(傳記)은<sup>15)</sup>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공간의 신비로움을 증폭시키는 장치로 작용한다. 이러한 결합의 정점에서, 조귀명은 “위 아래에서 마치 큰 강물이 요동치는 소리가 들린다.”<sup>16)</sup>는 청각 경험을 삼입한다. 이는 ‘설(說)적 초월성’이라기 보다, ‘기(奇)한 공간에서 발생한 ‘기’한 감각적 체험(遊記)이다.

屏山之下，是有風水二穴。風秋冬息，春夏嘯。穴口帖地腹以入，窿然若室者十餘武。小竇北出，過是如羊腸，如鍊汞流凝，奇怪萬形。其土赤泥，積陰森森，上下常有聲，如大川澎湃(시각적 ‘기’+청각적 ‘기’/遊記)

人行，或起或頽或蹲或伏或湧以躋，或墜以下，或左抱而先右足，或右抱而先左足。人一炬，炬隔人如漆，前者去久，聲在背，後者躡趾，顧不見已而。(신체적 체험/遊記)

穴兩出，其西數十武爲潭，水深黑，不可渡。其東入益深，穴稍開，有基若堂，高四五尺，後有竇若牖。牖下隱約有窰形，古避亂處。(역사적 흔적/傳記)

여기서 ‘기’는 ①기괴한 시각(遊記), ②초현실적 청각(遊記) ③피란처의 역사(傳記)라는 세 요소를 하나의 긴밀한 체험으로 엮어낸다. 이 요소들이 증폭되어 독자의 불안과 경외감을 최고조로 이끌어가는 것이 「풍수혈」의 핵심적인 조직 방식이다.

「귀담」에 이르면, ‘기’는 <표1>에서 보듯, ‘연쇄와 심화’라는 역동적인 방식으로 텍스트를 조직한다. 이 소절은 웅장한 자연(遊記)에 마주한 순간, 인

14) 趙龜命, 앞의 책, 42쪽. 「風水穴」, “屏山之下，是有風水二穴。風秋冬息，春夏嘯。穴口帖地腹以入，窿然若室者十餘武。小竇北出，過是如羊腸，如鍊汞流凝，奇怪萬形。”

15) 위의 글. “後有竇若牖，牖下隱約有窰形，古避亂處。”

16) 위의 글. “其土赤泥，積陰森森，上下常有聲，如大川澎湃。”

물의 비범한 행위(傳記)가 촉발되고,<sup>17)</sup> 이는 다시 철학적 사유(說)로 나아가는 뚜렷한 점층적 결합을 보여준다.

季父信卿夔弟，至自金山郡衙。二月甲戌，與伯氏，向龜潭。聯三小艇，歌琴隨。數十里，過七洞，東望峽口，熊熊有積氣，丹丘洞門也。玉筍峰峙焉，其高百仞，其狀如束筍。舟稍轉，削壁前迎，黝黑如漫天大障，其氣森然。 ← ① 기이한 자연 (遊記)

琴客金聲澤狂叫起舞。 ← ② 기이한 인물 (傳記)

龜峰最雄，其上有立石，方而長，白色如削。余曰，以大筆，書姓名于石上，深刻墨填。江上下皆見，而千年不磨矣。伯氏笑曰，使楊蓬萊，書趙靜庵名稱之矣。 ← ③ 기이한 사유 (說)

먼저 조귀명은 압도적인 절벽을 ‘온 하늘을 덮은 거대한 장막(漫天大障)에 비유하며 ①기이한 자연의 위용을 극대화한다. 바로 이 순간, 정적인 풍경 관습은 깨진다. 동행한 금객(琴客) 김성택이 ‘광란의 소리로 노래하며 춤을 추는 (狂叫起舞) ②기이한 인물의 행위로 이 자연에 응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물의 ‘기’는 다시 작가의 ‘기(奇)’한 상상력, 즉 영원성을 향한 ③기이한 사유를 촉발시킨다. 작가는 거대한 바위에 이름을 새겨 ‘천년이 지나도 마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멸에의 욕망을 드러낸다. 이는 김성택의 춤과 마찬가지로, 유한한 인간이 장구한 자연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이자 그것을 넘어서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처럼 「귀담」은 기이한 자연(遊記) → 기이한 인물(傳記) → 기이한 사유(說)로 이어지는 명확한 연쇄 반응을 통해 조직된다.

앞선 사례들과 <표 1>을 종합하면, 조귀명이 ‘기(奇)’를 통해 이질적 요소를 결합하는 방식에 일정한 패턴, 즉 점층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텍스트는 먼저 ‘감각적 차원의 奇’에서 출발했다. 「수옥정」은 얼음 폭포의 기이한 아름다움으로, 「풍수혈」은 동굴의 기괴한 형태와 소리로, 「귀담」은 깎아지른 절벽의 웅장함으로 독자의 감각을 일깨우며 텍스트의 문을 연다.

17) 김성택의 돌발 행동은 정적인 풍경 감상에 관습을 깨는 ‘기’한 행위이다. 이는 조귀명이 당대의 정형화된 문인상을 넘어 예법에 얽매이지 않는 진실한 예술가의 모습, 즉 ‘眞我’를 긍정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렇게 감각을 일깨우는 자연의 비범함이 제시되면, 이는 곧이어 ‘행위적·역사적 차원의 奇’를 불러낸다. 「수옥정」에서 작가는 기이한 자연 바로 곁에서 조상이 남긴 글씨와 숙부가 세운 정자를 발견한다. 이는 과거 인간이 남긴 행위의 흔적이자 역사의 기록이다. 여기서 ‘奇’는 단순한 풍경 묘사와 역사 기록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이 두 차원의 ‘奇’가 결합하며 텍스트는 ‘사유적·철학적 차원의 奇’로 나아간다. 유한과 무한, 죽음과 영원이라는 주체들이 제기되며, 작품은 단순한 기행문을 넘어 깊이 있는 철학적 성찰의 공간으로 완성된다. 이처럼 자연의 奇 → 인간(행위/역사)의 奇 → 사유의 奇로 이어지는 점층적인 과정은 조귀명이 이질적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도달하고자 했던 구조적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추기동협유상」에서 ‘기’는 단순한 미학적 개념을 넘어 텍스트의 구조를 형성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의 경계를 해체하는 능동적인 조직화 원리이다. 조귀명은 ‘기’를 통해 유람의 기록에 인물의 역사를 담고, 인물의 행적에 철학적 사유를 부여하며, 철학적 사유를 다시 감각적 체험으로 되돌리는 유연한 결합 전략을 구사한다. 이는 모방과 관습에서 벗어나 작가 자신만의 고유한 뜻(意)과 진실(眞)을 구현하고자 했던 18세기 ‘尙奇’ 미학의 가장 성공적인 문학적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 2.3. ‘기(奇)’가 창출하는 미학적 효과

「추기동협유상」에서 ‘奇’는 이질적 요소들을 결합하는 원리를 넘어, 전통적인 서술 관습을 해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독특한 미학적 효과를 만든다. ‘기’의 작동은 작가 개인의 단일한 목소리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공간을 열고, 시공간의 선형적 질서를 와해시키며, 문체적으로는 관습을 파괴하는 파격(破格)을 통해 독자에게 새로운 미적 경험을 제공한다.

가장 주목할 미학적 효과는 다양한 발화 주체가 공존하는 다성적(多聲的) 구조의 형성이다. 전통적인 산수유기가 작가 개인(나)의 시선과 감회를 중심으로 하는 1인칭의 단일한 목소리로 서술되는 것과 달리, 「추기동협유상」은 ‘기’가 발현되는 순간마다 여러 인물이 등장하여 각자의 시선과 목소리를 드

러낸다. 작가의 목소리가 다른 인물들의 목소리를 지배하지 않고, 여러 독립적이면서도 동등한 목소리와 의식이 공존하며 대화하는 상태가 구현된다.

「귀담」에 대한 분석(2.2절)은 이러한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소설에서 텍스트의 초점은 작가 개인의 감상에서 동행인의 독립적인 행위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이는 ‘기(奇)한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 촉발된다. 작가는 깎아지른 절벽을 ‘온 하늘을 덮은 거대한 장막’<sup>18)</sup>에 비유하며 그 ‘기’한 힘을 감각적으로 그려낸다. 바로 이 순간, 텍스트의 초점은 작가에게서 동행인인 금객 김성택으로 전환된다. 이 ‘기’한 자연에 대해 김성택은 “미친 듯 소리치며 일어나 춤을 추는”<sup>19)</sup> 행위로 응답한다. 그의 돌발 행동은 정적인 자연 감상의 관습을 깨는 격렬한 반응이다. 조귀명은 김성택의 이러한 비규범적 행위(奇)를 평가하거나 재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서술함으로써, 그를 압도적인 자연과 직접 교감하는 독립적인 주체로 격상시킨다.

또한 「월악」에서 작가는 산사태로 급격히 변모한 자연 풍경을 통해 ‘시간의 쉼’을 포착한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철학적 사유가 작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백씨(伯氏)’의 입을 통해 제시된다는 점이다. 이는 「추기동협유상」이 단일한 작가의 시점을 넘어 여러 주체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텍스트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먼저 작가는 산사태로 인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풍경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백씨가 말했다. 신축년에 왔을 때와는 크게 달라졌구나.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는 변화가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 같으니, 이와 같구나.<sup>20)</sup>

여기서 백씨는 단순한 동행인을 넘어, 눈앞의 풍경 변화를 ‘상전벽해’라는 고사를 통해 인간사를 초월하는 거대한 시간의 흐름과 연결시키는 독립적인

18) 趙龜命, 앞의 책, 43쪽. 「귀담」, “舟稍轉, 削壁前迎, 黝黑如漫天大障, 其氣森然.”

19) 위의 글. “琴客金聲澤狂叫起舞.”

20) 趙龜命, 앞의 책, 43~44쪽. 「월악」, “伯氏曰, 與辛丑來時, 大異矣. 桑海之變, 不容彈指如此.”

사유의 주체로 기능한다. 그의 목소리를 통해, 산사태라는 구체적인 자연 현상은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찰나의 시간과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는’ 장구한 시간이 중첩되는 ‘쑤’한 시간성의 공간으로 변모한다. 이는 단순한 자연 현상에 대한 감상을 넘어, 시간의 무상함과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처럼 조귀명은 ‘기’를 매개로 작가 자신뿐만 아니라, 「수옥정」에서 과거의 역사를 증언하는 조상, 「귀담」에서 격정적인 행위로 자연과 교감하는 김성택, 「단구」의 기녀, 「월악」의 백씨처럼 다양한 주체들의 시선과 목소리를 작품 안에 복합적으로 배치한다. 작가는 이들의 목소리를 평가하거나 자신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서술함으로써, 전지적 서술자의 입장이 아닌, 다양한 목소리들이 서로 어우러지도록 하여 작품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도록 한다. 따라서 「추기동협유상」은 작가의 독백이 아닌 다양한 주체들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텍스트의 의미가 단일하게 고정되지 않고 다층적으로 확장되는 다중주체 효과를 만들어낸다.

또한 ‘기’는 시공간의 선형적 질서를 해체하고 다층적으로 재구축하는 미학적 효과를 낳는다. 박희수(2015)가 지적했듯이<sup>21)</sup> 조귀명의 유기는 여정 묘사를 과감히 생략하고 인상적인 순간들을 병치하는 ‘불연속적 인접’의 구성 방식을 취하는데, 이는 ‘기’의 체험을 통해 시공간이 재편되는 양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시간의 재구축은 「단구」 편의 기녀 전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옛날 단구에 기녀가 있었는데, 죽으면서 말하기를 ‘나를 귀담의 언덕에 묻어 선대가 보이는 곳, 내가 노닐던 곳에 있게 해 달라’ 하였다.<sup>22)</sup>

현재 유람객의 눈 앞에 펼쳐진 물리적 풍경(遊記) 위에 고대의 전설(說/傳記)이 투영되면서,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쑤’한 서사 공간 속에서 공존하는 다층적 시공간으로 변모한다. 공간 인식 또한 ‘쑤’를 통해 현실의 지리적 장소에서 신비로운 이계(異界)적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풍수혈」의 동

21) 박희수, 앞의 글, 262쪽.

22) 趙龜命, 앞의 책, 43쪽. 「丹丘」, “古有丹丘之妓, 死曰, 葬我於龜潭之岸, 以望僊臺我所遊也.”

굴 묘사는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2.2.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수은을 녹여 흘리는 것 같은 기묘한 형상(如鍊汞流凝)”과 “큰 강물이 요동치는 소리(如大川澎湃)”와 같은 초현실적 묘사는 동굴을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일상 세계의 질서가 통용되지 않는 별개의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이러한 ‘기(奇)’한 공간 체험은 그 안에서 시간의 흐름 또한 비일상적으로 느끼게 하여 마치 시간이 압축되거나 확장되는 듯한 감각을 유발한다.

마지막으로 ‘기’의 미학은 문체적 차원에서 관습을 파괴하는 파괴적으로 구현된다. 18세기 문단이 의고적 문풍의 영향 아래 상투적이고 관습적인 표현에 매몰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조귀명은 의도적으로 낯설거나 기이한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무더진 감각을 일깨우고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특히 비유법의 활용에서 두드러진다.

2.2.절에서 분석한 「수옥정」의 얼음 폭포 묘사는 그 대표적 사례이다.

튀는 물방울이 모두 얼음인데, 대롱대롱 매달린 것이 촛농으로 만든 구슬 같고, 옥가산(玉假山) 같아 진기하고 교묘하고 눈부시고 기묘하다.<sup>23)</sup>

얼어붙은 물방울을 비유한 ‘촛농으로 만든 구슬(燭珠)’은 낯선 사물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일상적이고 비속하기까지 한 사물이다. 또한 ‘옥가산(玉假山)’ 역시 자연물이 아닌 인공물이다. 조귀명은 신비로운 자연의 절경을 묘사하기 위해 당대의 관습적인 상투어, 예를 들면, 이백의 「망여산폭포(望廬山瀑布)」에 나오는 “나는 은하수가 구천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네(疑是銀河落九天)”라는 구절의 ‘은하수’, 혹은 폭포의 흰 물줄기가 힘차게 굽이치는 모습을 비유한 ‘옥으로 만든 용’ 등을 사용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사물, 심지어 인공물(奇)을 비유로 가져온다.

이는 ‘기(奇)’를 표현하기 위한 역설적인 문체 전략이다. 즉 상투적인 언어로는 ‘기’의 생생한 감각을 전달할 수 없기에, 오히려 가장 구체적이고 손에 잡힐 듯한 일상의 사물(촛농, 가짜 산)을 통해 얼음 폭포의 형태와 질감이라

23) 위의 책. 「수옥정」, “飛沫皆冰, 纍纍如燭珠, 如玉假山, 瑰巧眩幻.”

는 감각 자체를 낳 것으로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관습적 미의식을 파괴하는 조귀명의 ‘기(奇)한 문체 실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박희수(2015)가 밝혔듯이,<sup>24)</sup> 조귀명은 『산해경』의 구법을 차용해 간결하면서도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예를 들어 “이곳에는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다(是有絕壁屏圍)”와 같은 표현은 유려한 묘사 대신, 대상을 압축적이고 단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현실의 공간을 신화적이고 원초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이처럼 조귀명의 문체 실험은 ‘기’ 미학을 중심으로 관습적 표현을 해체하고, 구체적인 감각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통해 이질적 요소들이 결합된 텍스트의 독특한 미적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 4. 결론

이상에서 18세기 문인 조귀명(趙龜命)의 「추기동협유상(追記東峽遊賞)」이 지닌 복합적 구조의 작동 원리를 규명하고자 했다. 기존 연구들이 작품의 ‘장르 혼합’ 현상을 지적하는 데 기여했다면, 본 연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장르’라는 규범적 틀만으로는 이 텍스트의 독자성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奇)’라는 미학적 개념이 유기(遊記)적 체험, 전기(傳記)적 인물/역사, 설(說)적 사유와 같은 ‘이질적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핵심적인 ‘조직화 원리’로 기능하고 있음을 밝혔다.

‘기(奇)’는 비일상적 자연, 규범을 넘어서는 인물, 초월적 사건 등의 장치를 통해 구체화되며, 각 요소의 경계를 허물고 상호 침투하게 하는 촉매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했다. 본고는 ‘기(奇)’가 작동하는 구체적인 결합 방식으로 병치(並置)(수옥정), 증폭(增幅)(풍수혈), 그리고 연쇄 및 심화(連鎖 및 深化)(귀담) 등의 양상을 제시하였다. 특히 「귀담」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奇 → 인간의 奇 → 사유의 奇로 이어지는 점층적 과정은 조귀명이 도달하고자 했던 구조적 지향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24) 박희수, 앞의 글, 273쪽.

나아가 이러한 결합 원리가 창출하는 미학적 효과를 세 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작가 '나'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백씨', '김성택' 등 다양한 인물의 목소리를 병치하는 '다성적(多聲的) 구조'를 형성한다. 둘째, '불연속적 인접'과 전설의 삽입을 통해 시공간의 선형적 질서를 재편한다. 셋째, '촛농 구슬(燭珠)', '양의 내장(羊腸)'과 같이 지극히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관습적 미의식을 파괴하는 조귀명 고유의 '문체의 파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존에 단편적으로 파악되었던 이질적 요소들, 독창적 문체, 작가의식 등의 특징들이 '기(奇)'라는 하나의 중심축을 통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통합적 분석틀을 제시했다.

다만 이 연구는 '기(奇)'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추기동협유상」의 내적 구조를 밝히는 데 집중하여, 조귀명의 다른 산문 작품이나 당대 다른 작가들의 글과의 비교 고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향후 '기(奇)'의 조직화 원리'라는 분석틀을 이용후, 박지원 등 동시대 다른 작가들의 실험적 텍스트에 적용하여 그 유효성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사료

趙龜命, 『東谿集』, 韓國文集叢刊215, 한국고전번역원.

### 2. 논저

강수진, 「동계(東谿) 조귀명(趙龜命)의 글쓰기 연구 -병에 대한 인식과 극복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34, 2015.

김 경, 「18세기 漢文散文의 尙奇 논의와 作品樣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김민학, 「東谿 趙龜命 散文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박상영, 東谿 趙龜命 散文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박희수, 「東谿 趙龜命 遊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_\_\_\_\_, 「趙龜命 「追記東峽遊賞」의 문체와 작가의식의 의미에 관하여」, 『동방한문학』 87, 2021.

송혁기, 「17세기말~18세기초 산문이론의 전개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이태희, 「趙龜命의 散文 연구」,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이흥식, 「東谿趙龜命의 主意論的 글쓰기와 奇의 미학」,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Abstract>

**A Study on the Heterogeneous Elements and  
Their Combining Principle in Jo Gwi-myeong's  
Chugidonghyeopyusang**  
- Focusing on the Operational Mechanism  
of the Concept 'Gi' (奇) -

Kim, Kwang-Seob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the structural principles of the text found in Chugidonghyeopyusang (Reminiscence of an Excursion to the Eastern Gorge) by the 18th-century writer Jo Gwi-myeong (1693-1737). This work is a distinctive text wherein heterogeneous elements—such as travelogue (yugi), biography and history (jeon-gi), and philosophical discourse (seol)—are intricately intertwined. Accordingl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concept of 'Gi' (奇; the extraordinary) serves as the core organizing principle that integrates these disparate elements into a single unified text. Jo Gwi-myeong embodies 'Gi' through descriptions of extraordinary nature, eccentric figures, and supernatural events, utilizing it as a method for the juxtaposition, amplification, and concatenation of heterogeneous elements. The analysis reveals that 'Gi' acts as a catalyst mediating between scenery and memory, as well as between action and thought, thereby constructing a polyphonic structure and non-linear space-time within the text. Furthermore, the use of concrete metaphors, such as “candle wax” or “sheep’s entrails,” functions as an expressive strategy that highlights the writer’s distinctiveness, differentiating his work from conventional styles. Consequently, in Chugidonghyeopyusang, 'Gi' is not merely a rhetorical device but an aesthetic driving force that permeates the entire work.

\* Key Words: Jo Gwi-myeong, Chugidonghyeopyusang, Gi (奇), Organizing Principle, 18th-Century Prose

· 논문투고일: 2025년 10월 10일 · 심사완료일: 2025년 11월 24일 · 게재결정일: 2025년 11월 26일